

더민주·국민의당 5~6곳 접전... '과반 싸움' 소지역주의의 변수

2野 분석 전남 초반 판세

광주국회의당 우세 국면이라면, 10개의 선거구가 있는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은 소지역 구도와 인물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접전 지역의 경우, 투표함을 개봉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더민주에서는 최소 6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곡성·구례, 나주·화순, 담양·장성·영광·함평,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영암 등을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여수갑은 박빙 지역으로, 열세 지역으로는 목포시, 여수, 고흥·보성·강진·장흥이라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데다 선거 막판 '그래도 더민주'라는 바람이 분다면 최대 7~8석은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시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선거구에서는 더민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니까 후보들의 경쟁력에서도 앞서고 있어 최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전남에서 7~8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현역 의원이 있는 목포시와 여수, 고흥·보성·강진·장흥 등 3개 지역구에서 확고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수갑, 해남·진도·완도, 무안·신안·영암,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장성·영광·함평 등을 박빙 우세 및 접전 지역으로, 순천시만 박빙 열세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남의 바닥 민심에 '3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선

양당 모두 3곳 확고한 우세 주장

더민주 "후보 인물 경쟁력 앞서"

국민의당 "바닥 민심에 3번 바람"

거 중반에는 접전지역이 우세 지역으로 바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의 특성상 국민의당 지지세가 강한 50대 이상의 고령 유권자가 많다는 점도 승리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접전 지역 국민의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 추이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선거 막판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지금 전남 민심의 저변에는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선거 막판 태풍을 차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민주나 국민의당 모두 확고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는 3~4곳 내외라며 나머지 5~6개 지역구를 놓고 선거 막판까지 양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남 민심 저변의 '반 문재인' 정서가 선거 막판 지역 및 인물 구도 등을 넘어 국민의당 후보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민주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민주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지역구도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전남의 접전 지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3~4개 지역구의 경우, 투표함을 개봉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ium@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장 선대위 출범 29일 광주시 광산구 국민의당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시장 선대위 출범식에서 천정배 공동대표 등이 4·13 총선 및 동구청장 재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충청권 야권후보 단일화 확산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는 막기 힘들다"...10여곳 논의 진행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후보 간 단일화는 막기 힘들다"며 사실상 선거구 단위의 단일화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20대 총선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과 협의 없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면 제재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 대해 "단일화를 위해 공천을 받아 놓고 등록을 포기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후보 단일화를 압박했다. 이재정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합의가 성사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급제동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정치가 국민을 최우선 하는 정치라면 국민의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당·제명을 운운하며 단일화를 차단했던 국민의당이 가능성을 열면서 지역별 단일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야권 단일화 수준에 따라 2주 남은 총선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충청권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경남 창원 선상에서 더민주 허성무 후보가 사퇴하고 정의당 노환찬 전 의원이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또 강원 춘천에서도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가 사퇴하면서 더민주 허영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기로 했다.

경기 안양 동안읍에서는 국민의당 공천을 받은 박광진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포기한 뒤 이날 더민주 이정국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 수원병에서도 국민의당 김창호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첫날이던 지난 24일 더민주 김영진 후보로 단일화하는 데 합의했다.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구도 10여 곳에 이른다.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호준 의원(서울 중·성동을)과 부좌원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각각 더민주 이지수·송정원 후보와 단일화 논의의 물꼬를 텄고 서울 강서병의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도 상당한 의견 접점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대덕에서는 더민주 박영순·국민의당 김청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 연수구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는 이날 더민주 윤종기 후보에게 야권단일화를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40석 목표...실패 땀 책임질 것"

관훈클럽 토론... "제 머리속에 대선은 들어 있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9일 4·13 총선 목표 의석수로 40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호남 20석 이상, 정당 지지율 20% 이상 목표로 비례대표 10석, 수도권·충청권 8석 이상을 전망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40석 목표 미달 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결과에 대해 항상 책임져 왔다"며 "이번 총선도 결과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 미달 시 정치를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한테 정치는 소명이다.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다"며 "남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또 4·13 총선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당대당 연대는 없다고 분명 말씀 드렸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고 불가분을 재확인했다. 이어 "야권연대 거부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중연 대표"라며 "김 대표가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하나로 목소리를 통



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진보 진영 재야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야권 연대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저희 같은 신생정당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권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대선을 계속 패배한 더민주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보다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제 머릿속에 대선은 들어있지 않다"며 "이번 총선을 거쳐 국민의당이 자리 잡고 3당 정립체제가 돼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공천 결과 현역의원 교체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현역 10% 정도, 나머지 90% 정도는 신인"이라며 "속된 표현으로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해 능력이 있지만 기회를 못 가진 분들이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대표이사 최금환

카메라로 떠나는 일본 후쿠오카 벚꽃+온천 여행~!!

출발일 4/3, 4/10, 4/12, 4/18, 4/24, 5/8, 5/14, 5/22, 5/29

-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아마가세 고급 별장 온천여행 4일 ₩529,000~
- ▶ [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4일 ₩559,000~
- ▶ [고품격] 전통료칸 온천여행 + 후쿠오카 특급 4일 ₩599,000~
- ▶ 부관철키 북규슈 미야지마, 이와쿠니 3박4일 특가 1인당 ₩449,000~

포함 : 선박왕복, 유류세, 부두세, 일정표상의 일정, 입장료, 가이드비, 국내수송비
 불포함 : 여권 및 개인경비, 신용카드

2016년 무안출발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여행!!

출발일 7/28, 8/1, 8/6, 8/11

울란바토르, 테를지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트래킹	3박5일 ₩1,499,000	출발일 : 7/28, 8/11
	4박6일 ₩1,64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1
	4박6일 ₩1,599,000	출발일 : 8/6		4박6일 ₩1,549,000	출발일 : 8/6

불포함 : 신용카드, 호텔(2인실)/객실(4인실기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발맞사지 봉사료

무안공원에서 떠나는 장가계 전세기!!

▶ 출발일 3월 9일 ~ 6월 1일까지 매주 수, 토요일

실속	무안-장가계	3박5일 ₩699,000
		4박6일 ₩699,000
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050,000
		4박6일 ₩1,090,000
고품격	무안-장가계	3박5일 ₩1,150,000
		4박6일 ₩1,190,000

불포함 : 개인경비, 신용카드, 가이드&기사경비(50%), 단체비(₩35,000)

무안 → 북해도(삿포로) 전세기 취항

▶ 출발일 7/31, 8/4, 8/8, 8/12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타, 오타루, 삿포로 5일 ₩1,599,000~
- ▶ 삿포로 1일 자유일정
- ▶ 노보리베츠, 도야, 사코타, 오타루, 삿포로, 후라노, 비에이 5일 ₩1,6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 ▶ 노보리베츠, 도야, 오타루, 삿포로, 하코다테, 후라노 5일 ₩1,799,000~
- ▶ 3대 게요리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기타매너티, 기사&가이드 경비(₩4,000)/인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북경, 만리장성 4일 ₩650,000~ ※화요일 출발
- ▶ 북경, 고북수진 4일 ₩750,000~ ※화요일 출발
- ▶ 연산, 태항대협곡 5일 ₩1,150,000~ ※금요일 출발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인천에서 떠나는 중국의 숨은보석 산동성!!

- ▶ 산동성(치박, 제산, 제남) 4일 ₩699,000~

특전 : 광주-인천 왕복 수송 포함!!
 불포함 : 개인경비, 매너티, 선택관광, 광주-인천 이동 중 식사

- ▶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9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접관광, 식석2회
- ▶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8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접관광, 식석2회
- ▶ 광주-울릉도 3일 ₩345,000~
- ▶ 목포-홍도, 흑산도 2일 ₩145,000~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렇다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